복장유물 도난 '애타는 불심'

현황파악조차 안돼…대책마련 시급

전국 사찰의 불상 안에 봉안된 복장유물이 마구잡이로 털리고 있으나 '부처님 몸' 안에 들어있는 특성상 도난 여부조차 파악이 안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월부터 문화재 도난과 밀거래를 전국적으로 수사해온 검찰의 최근 발표는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서울지검 형사7부는 4월 24일 전국 사찰의 복장유물 등 국보 · 보물급이 포함된 문화재 1000여 점을 훔치거나 밀거래해 온 36명 중 2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명을 수배했다.

■회수된 문화재=이들이 훔치거나 유통시킨 복장유물 중에는 〈해인사 판당고 중수발원문〉 〈능엄경언해활자본〉 〈묘법연화경〉 〈대란야바라밀다경〉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가 수두룩하다. 해인사 장경각 불상 안에서 나온 〈해인사 판당고 중수발원문〉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판당고 건축 연혁 및 대장경 간행사실을 담은 귀중한 자료로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봉원사에서 도난당했던 〈능엄경 언해본〉도 중국의 〈수능엄경요해〉 10권을 조선 세조 때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것으로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이 밖에도 〈불설아미타경〉을 비롯해 수백 점의 불경이 회수됐다.

■심각성=이들 대부분이 복장유물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한 해만도 경북 김천 직지사를 비롯해 5건 50여 구 불상 복장유물이 털리거나 파손됐다. 지난 해 발생한 성보도난 사건 11건 중 3건을 차지한다.

이처럼 복장유물이 도난범들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불상을 봉안할 때 경전과 각종 귀중품을 함께 넣어 문화재급 유물이 많기 때문이다.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불경, 직물류 등은 국보 제282호로 지정되었고, 보물 제745호는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의 복장유물인 〈월인석보〉다.

최근에는 새로 조성된 불상 안에 봉안된 금불경 등을 훔쳐내 금은방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복장유물 도난범들의 경우 불경을 해독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어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문제점=문제는 복장유물의 경우 도난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느 사찰의 어느 불상에 얼마만큼의 복장유물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 때문에 도난문화재를 회수해도 소유주를 몰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해 3월 검거한 문화재밀매단에게서 압수한 61건 152점의 문화재 가운데 7건 31점만이 소유주가 밝혀져 해당 사찰에 반환됐다.

■대책=복장유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복장유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국보급, 보물급인 경우 박물관에 보관하는 등 도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도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복장유물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아직 종단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자스님은 "복장유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장비와 전문인력, 보존처리 준비가 갖춰질 때 가능한 부분이기에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와 문화재보호법 강화, 문화재 전담 수사반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4월 24일 적발된 문화재 밀매단이 사찰에서 훔친 불상, 탱화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

"사찰 비지정 문화재 조사 국고 지원"

고흥길의원 등 성명

각 사찰에 소장된 비지정문화재 도난 및 밀거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4월 26일 "사찰소유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 국고지원비를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찰 소유 비지정문화재 8만여 점 가운데 3만5천여 점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록조차 조사되지 않아 문화재 도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지난 해 예결위에서 삭감된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 지원비 5억원을 올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실태조사

한편 문화재청은 늘어나고 있는 전국 사찰 소장 문화재의 도난 및 밀매를 막기위한 전국 사찰문화재 실태일제조사 시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을 이웃과 함께

사찰 · 단체 자비행사 잇달아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교계 사찰과 단체들이 불우한 이웃 및 지역 군부대 등과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조계사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종립학교 진선여중 김진선 양의 신장이식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웃을 위한 등 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김 양의 쾌유를 비는 문구를 적어 넣은 등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는 방식의 이 모금행사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01-0563-150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도 후원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는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백전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어린이대공원, 청와대, 경복궁 등을 견학하는 '꿈과 희망을 실은 사랑의 열차' 행사를 갖는다.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도 구로 관내의 무의탁노인 80여명을 초청, 7일 여주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행사를 갖는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1일과 22일 복지시설 관계자 및 불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비의 릴레이 철야정진법회'를 갖고 이날 모금한 600여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운불련 대구지역회는 1일 16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또 제주불교연합봉축위원회는 재소자 돕기및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제주불교사회봉사회도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26일 각각 열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소망의 연등을 달아주고 후원하는 '무차연등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과 30일에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등의 자비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와 영남불교대학은 27일과 29일 각각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한명우 기자

"마이산 돌탑 관리자 '탑사주지'"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마이산 탑(전라북도기념물 제35호)의 관리인은 탑사 주지 '이왕선 스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은 4월 26일 왕선스님이 전북도를 상대로 청구한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관람료 징수위한 관리자 교체는 위법"이라며 "전북도지사는 마이산 탑의 관리자 교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선스님이 나한전, 종각, 요사채, 화장실, 안내판 등을 신축함으로써 마이산 돌탑의 주위 환경을 잘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부이며 마이산 돌탑을 조성한 이갑룡 거사에 이어 돌탑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해 오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문화재관람료 배분문제를 놓고 마이산탑사와 갈등을 빚자 지난해 6월 돌탑 관리인을 진안군수로 교체했고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한 탑사 측은 탑 관리인교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이경숙 기자

합장하는 동자승 4월 25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상인과 동자승이 연꽃등을 주고 받으며 합장하고 있다. 조계사는 이날 조계사에서 명동까지 시민들에게 봉축엽서와 컵등을 나눠주는 거리포교를 실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생협' 추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최근 '(가칭)인드라망생협 주비모임'을 구성하고 생협의 이념과 목적, 합당한 체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주비모임은 향후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회원이나, 귀농학교 동문(7회 동안 졸업생 250여명)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발기인을 모집할 방침이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수 · 토요일 오후 7 · 3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8기 귀농학교를 연다. (02)733-1884 김재경 기자

"원각사지 발굴조사후 탑골공원 성역화"

불교계, 서울시에 요구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성역화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가 원각사지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이 달 중순부터 시설물 이전과 조경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월 16일부터 탑골공원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4월 23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창건 당시의 건물지로 보이는 석렬과 대형 초석 2점, 범어 문양 수막새, 기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도위원으로 참석한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초석 등 외에는 뚜렷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금당지는 탑골공원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성역화 사업을 끝내면 다시 발굴 조사하는 것이 힘든 만큼 이에 앞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념물과 구조물 재배치, 조경 위주의 사업이라 추후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형진 기자

성역화된 종교권력 "자성하자" 한목소리

NGO 네트워크 세미나

'개혁을 위한 NGO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의 종교권력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상을 향한 목탁과 소금이란 본연의 기능보다 최후의 성역으로 권력화된 종교권력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한국학)는 '한국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내부개혁과제'란 발제를 통해 "한국 종교계야말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지만 스스로를 성역시함으로써 외부의 모든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자정 노력도 보이지 않아 종교의 구조조정은 난제중의 난제"라고 비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최승천 편집위원장은 사례발표에서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의 잇따른 발언 파동과 관련, "기왕에 주어진 종교권력은 잘 쓰면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잘못 쓰면 종교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정치권력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며 종교계와 정치권을 함께 비판했다.

김재경 기자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희소식!!!

중풍! 치매!

■병원 전경

■병원 내부 복도

■환자 치료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 - 17시까지 촛불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 내용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만 맞춰 보면 손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을 보탬.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작중 육임비법들을 모두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학관이나 사람이나 무슨일이나 황의리에 사람이 찾아오는지 간 하였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밖에도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너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찾아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아, 만일 그 내용을 사전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手而上의 으로서의 「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도

- 악숙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 치료기 증조할증지 대일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채워야 할지, 채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회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무속인 스님 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내 용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제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1960페이지 · 미색용지 · 올셀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0호 임실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書籍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山子 박맹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